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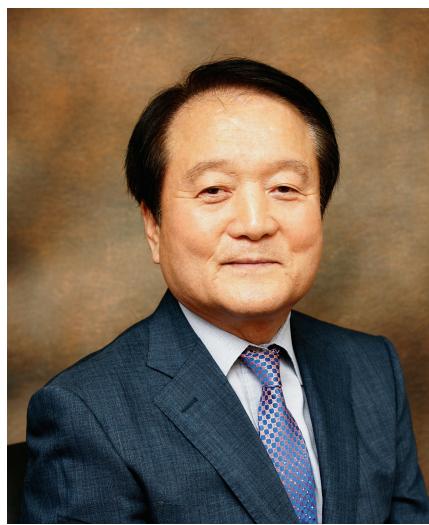
2017년 (단기 4346년) 4월 12일 (수)

<http://dongguk.info>

제241호

제25대 회장에 전영화 현 회장 재선출

2017 정기이사회 및 총회 성료…5백여명 모교 체육관 가득 메워



▲ 전영화 회장

본회 제25대 회장에 전영화(경찰행정 65학번) 현 회장이 재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2017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29일 오후 6시30분 모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영화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대학 · 법인 · 동창회가 삼위일체 되어 명문 사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무효화된 24대부터 27대까지의 회장들에 대한 원상복귀문제를 동문들의 총의를 모아 임기중에 대승적 차원에서 풀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동창회 관 건립기금 22여억원이 모교에 기탁되어 있는 현실에서 모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모교 총장 한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5월1일 거행될 개교 111주년 기념식에서 기존의 교훈인 ‘섬심 신실 자애 도세’ 대신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교훈을 정

해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캠퍼스 추진단을 통해 동창회관 등이 들어설 혜화문쪽 108주년 기념관과 기숙사, 체육관 신축 등의 획기적인 캠퍼스 확장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장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신, 69학번)에서 2월24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후보 등록을 공고, 3월20일 마감한 결과 전영화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하여 회칙 및 임원 등 선거 규칙에 따라 이날 무투표 당선되었다.

(관련기사 2면)

“무효 회장 복권 소송 중 논의 부적절”

상임위원회, 정기총회 부의사항 심의

본회 2017-2차 상임위원회가 3월9일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2016년도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법원 무효판결 24~27대 회장 원상복귀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회칙 제19조에 의거, 정기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룬 이날 상임위원회는 사업계획증에서 입학3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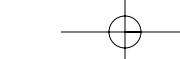
홈커밍데이 지원외에 입학 40주년 및 50주년 홈커밍데이를 추가하고 임원 및 일반 회원들의 회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24~27대 회장 원상복귀는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복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번 총회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3월29일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경향각지의 각계각층 동문들로 성황을 이뤘다.

동국대학교 개교 111주년 …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2] 2017년 4월 12일 (수)

종합소식

제241호

지난해 결산·올해 예산안 통과

4.19혁명동지회·부산지부·경제학과 우수상 수상



고용규 감사



김진수 감사



남택호 감사

(1면에서 이어짐)

고용규·김진수·남택호 감사 선출
감사 3인은 △고용규(70학번 정외, 동우들약품 대표이사) △김진수(78학번 행정, 창명기업 대표) △남택호(80학번 경영, 공인회계사) 동문이 입후보하여 경선자 없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박대신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영화 신임 회장과 고용규 등 감사 3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은 윤길한(64학번 정외) 동문이 맡았다.

결산·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이날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16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무수정 통과를 의결했다.

또 깊은 애교심으로 조직 활성화에 모범활동을 하고 있는 △4.19혁명동지회(회장 라동영) △부산동창회(회장 박진호) △경제학과동창회(회장 송일호)를 우수동창회로 선정해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총회를 마친 뒤 차연신(85

연극영화, 와이에스PMC 대표이사) 동문의 사회로 팝페라 가수 이경오씨와 텔런트 최준용(86연극영화), 똑순이 김민희(91연극영화) 동문이 출연하는 축하 음악 공연이 이어져 동문들에게 아름다운 밤을 선물했다.

송석구(58철학, 전 모교 총장) 고문과 김종필(82정외, 내일신문 정치부장) 소통위원회는 동문화합과 모교발전에 함께 하자는 덕담으로 만찬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원용선 상임고문과 선진규 김희형 임덕규 심경모 송석구 송석환 고문, 한보광 총장과 이관제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모교 간부, 유인학 4.19혁명 공로자회장, 박진호 부산동창회장, 손기범 대구동창회장, 전주 속초 밀양등지의 지방 동문, 각급 단위동창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47학번으로 90세가 넘은 최고 원로 동문들이 혜동회 박영민, 이남진, 김영근 선배에게는 흥삼 선물세트를, 참석동문 전원에게는 스마트폰 셀카봉을 각각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한편 체육관은 인천지부 등 11개 단위동창회의 자축 플래카드가 거치되어 총회 분위기를 북돋았다.



▲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은 정기총회에서 대학비전을 소개해 참석동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우수동창회상을 받은 4.19혁명동지회 라동영회장, 부산동창회 박진호회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경제학과동창회 송일호회장(좌측부터)



▲ 참석동문들이 축하공연에 호흡을 맞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동문 제언

동창회관 건립 “언제나 꿈 실현되나”



김갑기
(65국문·동국대 명예교수)

오늘은 불평·불만부터 해본다. 될 듯 되지 않고, 할 듯 하지 않으며, 말만 무성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질려는 사람도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자리해 앉았던 방석의 먼지만 풀풀 날려 온 무주공산, 그게 동창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아닌지 자문해보자. 동창회장이 탑시고 거쳐 간 거목들도 술했건만 111

년 건학의 자랑할 것 하나없는 동창회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그리고 동창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연대의식도 찾아보기 힘든 모교의 무관심! 각자도 생도 좋지만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도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동창회관만 해도 그렇다. 현재 경향 각지의 수많은 국·공·사립대학 중,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대학의 경우만 보더라도 변변한 동창회관 하나 없이 궁색한 대학은 우리 동국대학교 뿐이 아닌가 싶다.

지방대학은 차치하고 서울의 유수한 몇 개 사립대학의 경우, 거의 모두 번듯한 동창회관을 갖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한양대 등은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동창회에서 건물을 건립했다. 경희대는 대지 및 건축비를 모두 학교측에서 제공했으며, 성균관대는 부지를 동창회에서 매입하고 건축은

학교에서 시공해준 케이스이다.

또 서강대와 단국대는 학교 건물에 일정 공간을 배정 받았다.

서울대와 중앙대 국민대는 대지 및 건물을 동창회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4대문 안 요지에 위치해 워낙 캠퍼스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 부지 확보가 난제여서 동창회관은 口頭彈으로 50여년이나 설왕설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와중에 2005년 前 중앙대병원(현 동대 종무관) 자리를 구입하면서 재건축 시에 동창회 입주를 조건으로 한 동창회장과 법인 및 대학간의 MOU 체결이 학교신문과 동창회보 등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동문사회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종무관 재건축이 언제 착공할 것인지 불투명해지면서 동창회관 건립은 학교측만 바라보는 격이 되었다. 2014년에는 ‘개교 108주년 후원

의 밤’에서 혜화문 인근 부지에 ‘개교 108주년 기념관’ 건립안을 발표하면서 동창회관을 충무관으로부터 108주년 기념관으로 옮기기로 재합의했다고 발표됐다. 하지만 2015년 학교 총장이 바뀌면서 108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이 주춤거리다가 2016년 ‘개교 110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동창회는 회관 건립기금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억여원 이상을 학교측에 적립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 108주년 기념관도 언제쯤 착공될지 모르지만 현 한보광 총장님은 용맹정진하시는 굳은 신심과 남다른 애교심을 지니신 분이자 동창회원이시니 임기 내에 성취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동창회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학교발전의 지렛대이며 동창회 역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이 아닌가 싶다.



제241호

동 국 뉴 스

2017년 4월 12일 (수) [3]

새 집행부 상임위원회 구성 ... 수석부회장 추후 선임 발표

상임위원 28명 · 지역담당 상임부회장 11명 위촉

전영화 회장은 4월10일 회칙 제19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의거, 25대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정족수는 당연직 위원장인 회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수석부회장, 사무총장과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연임된 만큼 24대 상임위원 대부분이 유임되고, 4명이 교체되었다.

상임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열리는 상

임위원회에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상별위원회 회부 ▲회비 및 임원분담금 등의 결정 ▲모교법인 임원파송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본회는 또 지역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주직할동창회와 각 시·도 단위로 의결권과는 무관한 지역담당 상임부회장을 두기로 하고 11명을 별도 위촉했다.

한편 수석부회장은 후보자를 물색해 추후 선임 발표 될 예정이다.

25대 집행부 첫 상임위원회 개최

제25대 집행부 첫 상임위원회가 오는 4월26일(수) 오후 6시30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 간 상견례에 이어 본회 각종 현황 등이 소개된다. 또 2017년도 주요 행사 일정과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신규 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들을 개진한다. 한편으로 전영화 회장이 당선인사에서 밝힌 사업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와 법원 무효판결된 24~27대 총동창회장직 원상복귀를 위한 기구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임위원



111주년 기념식서 새 '교훈' 선포

5월1일, 우수교원·장기근속상 표창



모교가 오는 5월8일로 개교 111주년을 맞아 5월1일 10시30분 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기념식을 갖는다. 특히 이번 개교기념식에서는 새 교훈을 선포할 예정이다. 교훈 변경은 1934년 재정된 '섭심

(攝心) 신실(信實) 자애(慈愛) 도세(度世)' 가 뜻은 좋지만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세대에게 외면 받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지난해부터 누구나 알기 쉽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건학이념에 충실한 새 교훈을 만들기로 예고한 뒤 공모 등을 통해 새 교훈을 채택해 이날 개교 111주년을 기해 선포한다.

개교기념식은 또 우수 교원들에 대한 표창, 그리고 30년, 20년, 10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교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상, 공로상 및 동국불자상, 가족상 등도 시상할 예정이다.

지역담당 상임부회장





[4] 2017년 4월 12일 (수)

전 면 광 고

제241호

韓榮貿易株式會社

Hanyoung Trading Co., Ltd

대표이사 회장 **한영휘** (경제학 61卒)

- 경제학과 총동창회 3대 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신도연맹 7대 이사장 / 회장
-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위원회 상임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원로장로

www.hanyoungt.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 (한영빌딩)

Tel. (02) 571-1122
Mobile. 010-3757-2777

Fax. (02) 571-1121
E-mail. hany@hanyoungt.com

낙원건축(주)

건축시공 및 감리 / 건축가설재 임대

대표이사 **이병로**

(12984) 경기도 하남시 청뜰로 55-5

Mobile. 011-216-8431 (임대), 010-3345-1960 (시공)

Tel. 031) 793-1687 E-mail. nakwon1960@hanmail.net

www.guro.go.kr

Gro 구로구

구로구청장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Mobile. 010-4107-0945

Fax. (02) 860-3010
E-mail. leesung@guro.go.kr

세무법인 로고스

代表稅務士 吳學善

(행정대학원 92人)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3층 (석촌동, 투립빌딩)

Tel : 02) 419-3030 Fax : 02) 416-6900
Mobile : 010-6326-5060 E-mail : topohs@hanmail.net

(주)모셀 ☎ 02-2130-1111
민정화 / 정치외교학과83

모셀
두피 항노화 프랜차이즈

모셀두피항노화요법은
다양한 두피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하여
전문프로그램화 한 것으로
세포활성화기법과
뇌파활성화요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피의 노화를 막고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드립니다.



MOCCELL
Anti-aging Scalp Center

화장품 OEM · ODM 전문 회사
“신뢰받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 품목 한 품목 정성을 다해 귀사가 원하는 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전 라인 과 CC크림, BB크림 과 같은

색조 제품의 선두 그룹



(주)미도화장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7번길 20
TEL 032) 578-3092-4 / +82.32.578.3092~4
FAX 032) 578-3095 / +82.32.578.3095
E-MAIL marielans@hanmail.net
<http://www.midocosmetic.com/>

■ 제25대 총동창회장 전 영 화 동문

법정 무효화된 24-27대 총동창회장직 임기중 원상 회복 “동창회관 건립위해 학교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난 3월29일 2017정기총회에서 25대 회장으로 선출된 전영화(65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은 “그간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된 24-27대까지의 총동창회장을 화합과 단결을 요구하는 동문사회의 여망을 살려 임기중 원상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동문사회의 총의와 지혜를 모아 분란을 해결해야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전 회장은 이같은 화합의 기조 아래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총동창회의 조직 강화 △동창회-모교-재단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모교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활성화 △총동창회관 건립 추진 △장학회 정상운영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동문사회의 총의와 지혜를 모아 분란 해결에 앞장설 터

-총동창회장으로 재선출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동문사회에서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 문제로 총동창회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떠나면 다른 후임이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여기까지 왔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년동안 화합이 부족했다. 대국적 측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추대된 마당에 마무리하겠다. 사실 그동안 총동창회장은 명망가 중심의 선배들이 맡았고, 본인은 철저히 실무형이다. 실무형으로서 현안을 튼튼하게 마무리하고 올바른 동창회를 세우라는 뜻으로 안다.”

-지난 임기때의 보람있었던 일과 힘겨웠던 일을 회상한다면?

“초대 동창회장이셨던 만해 한용운 선사묘역 참배, 성공한 동문기업인 회사탐방, 동문영화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 남산걷기 대회라든지 지부동문회 방문 때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주셨다. 그리고 어느 동문은 연회비는 물론 동창회 발전기금을 꾸준히 내주셨다. 기업인 동문들이 수백, 수천씩 내는 기금이야 당연히 고맙지만, 경향 각지에서 얼마씩 약정해 자동이체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동국인의 끈끈한 정을 느꼈다. 충청도 암자에 계시는 스님 동문과 멀리 제주도에서 매월 1만원-3만원씩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총동창회를 잘 운영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졌다.



동문들이 직접 동창회관을 방문해 격려 말씀 주시고,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 총동창회가 이렇게 변했나 하며 감격해하

기업인 동문들이 수백, 수천씩 내는 기금이야 당연히 고맙지만, 경향 각지에서 얼마씩 자동이체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

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다. 뭐니뭐니 해도 묻혀있던 동문들이 찾아오시는 것이 기뻤다.”

그는 이밖에 이번 정기총회때 1946년 혜화전문 입학생인 90세가 넘는 박영철(영문과), 이남진(영문과) 선배동문에서부터 2000년대 졸업한 동문까지 격의 없이 참석한 것을 보고 감격했다고 소개했다. 애로점은 소수 동문의 분란과 동국장학재단의 정상화 지연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별일 역점 사업을 소개한다면?

“총동창회 조직을 강화할 것이다. 학과별, 기수별, 직능별, 지역단위동창회,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동창회 등과의 유대를 증폭시켜 30만 동문이 명실상부한 하나가 되는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집중화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



리 동국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동문회, 연예인동문회, 동국문학인회, 정치인 등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인적자원이 되고 있다. 이는 동국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우수지부동창회상을 받은 부산지부 동창회는 지역사회에 리더로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 회장은 모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명했다. “모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총동창회관 건립을 비롯한 학교 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학과별, 기수별, 직능별, 지역단위동창회,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동창회 등과도 유대를 강화하겠다

것. 매년 실시해오던 동문 영화관람, 동문기업인회사 탐방, 골프대회, 남산걷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올해는 템플스테이를 갖겠다고 소개했다.

“템플 스테이는 상반기 중에 오대산 월정사나 만해스님의 족적이 남아있는 백담사 만해마을로 1박2일 예정으로 갈 계획이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갖고 있는 자산중의 하나가 전국 명산을 끼고 있는 유명사찰인데, 이를 사찰들을 차례로 순례하는 일환으로 가서 수양과 힐링을 하면서 모교와 법인과의 일체감, 정체성 확립, 그리고 총동창회 발전책을 강구하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일부 분란을 일으키는 동문 문제와 동국장학회 원상회복의 문제에 관해서는?

“24-27대까지의 회장단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동창회장 선출과정에서 6억원의 기탁금 납부가 사회적 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시기의 총동창회장의 직위는 상실된다는 법원판결이었고, 총동창회는 이 판결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쪽과 피해받은 동문 회장단이 있다. 재추대된 마당에 이 문제를 화합의 차원에서 임기내 해결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동국장학회 문제인데, 장학재단 표류로 인해 매년 3억원 이상 모교 재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본의아니게 모교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겠다는 동문기업인들이 많다. 이 문제도 조속해 해결해서 모교 후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참고로 동국장학회는 전임 이연택 회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은 뒤 서류와 직인을 넘겨주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장학재단 인수 인계 절차가 서류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총동창회 존립목적중 하나는 후배학생들의 장학사업이다. 3년간 표류상태가 되다보니 결국 모교 재학생들에게 10억 원 이상 혜택을 주지 못한 셈이다.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를 위해 진행중인 여러 소송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지를 모아주기 바란다.”

-총동창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모교측과 함께 가는 문제다. 모교 캠퍼스 혜화문쪽에 대대적인 상징건물을 신축하기로 되어있다. 여기에 우리가 기금을 모아 상당부분 건축비를 댈 계획으로 있다. 총동창회에서 건축기금으로 학교의 기탁한 22억여원이 계속 증식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그는 동국대학교가 자신의 존재이유라고 할만큼 동국 출신임을 긍지로 여긴 동국맨이다.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그는 온화하면서도 원칙에 투철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계홍 (본회 홍보분과 위원장)



▲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영화 회장(왼쪽)과 이계홍 홍보분과 위원장.



[6] 2017년 4월 12일 (수)

종합소식

제241호

이사회 및 총회 금지 소송 '기각'

문병호 등 4인 신청 … 동창회 업무 방해 지속

2017년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앞두고 3월15일 문병호 외 3인(박용재 이황 정안석)이 제기한 '3.29 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3월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이번 3.29 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3월10일부터 3월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표자도 밝히지 못하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동문들에게 "25대 회장 선출이 부당하다"면서 총회 불참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재판에는

변호사를 3명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병호 외 3인은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 때도 '이사회 및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가 총회 1일전에 기각 당했다. 이들은 이에 불응해 다시 총회 결과를 놓고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거푸 기각 당해 동문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복하며 사건마다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등 총동창회 분란을 조장해 빙축을 사고 있다.

장학회 시위관련 소송 2건 '기각'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정상화 시위와 관련, 이연택 전 이사장이 김수창 부회장을 비롯 후배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기각' 되었다. 8명중 80여 차례 1인시위를 벌였던 송인모 동문은 별도의 이의신청에서 합의조정을 거쳐 무

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장학회 시위금지 가처분을 냈던 이연택 전 이사장은 위 8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도 냈지만 3월1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이연택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소 했다.

4.19혁명 제57주년 추도식

4.19혁명 제57주년 추도식이 오는 4월 19일 오후 1시 모교 만해동산 동우탑앞에서 거행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4.19혁명동지회 라동영(59/63불교)회장, 김성재(58/63정치)유공자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전영화 총동창회장, 모교 간부 및 재학생들이 참석해 분향과 현화 등으로 당시 희생된 노희두(58법학)동문과 고인

이 된 회원들의 명복을 빌게 된다.

회원들은 이에 앞서 오전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 국립 4.19국립묘지를 참배한다.

한편 모교는 4.19혁명을 기념해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1970년부터 개최해온 동국인등산대회를 4월14일 서울과 경주에서 각 캠퍼스별로 갖는다.

"동국,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

2017년 봄 학위수여식



명예박사 수불스님



명예박사 서정호 회장

한국불교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수불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앰버서더호텔그룹 서정호 회장에게는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이날 재학생 중 자체장애 병마를 이겨내고 6회 학기우등생의 성적을 거둔 박성준(법학과)동문과 Young Creative Korea Film Festival 우수작가로 선발된 장서원(영화영상학과)동문 등 13명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주캠퍼스는 2월17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397명, 석사 37명, 박사 8명, 불교문화대학원 5명, 사회과학대학원 13명, 경영대학원 3명, 의학전문대학원 27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7명 등 총

149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그대, 동국의 주인공이 되어라"

서울캠퍼스 3,034명 입학

모교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행사가 2월24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올해 신입생은 3034명이며, 수석합격은 경찰행정학부에 입학한 박아현 학생이 차지했다.

입학식 후 진행된 신입생 환영식은 연극학과 79학번인 방송인 이경규씨의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국제통상학과 5인조 밴드 '1/N'의 축하공연, 연극학부 재학생들이 준비한 '레미제라블' 뮤지컬 공연도 펼쳐졌다.

경주캠퍼스 1,833명 입학

경주캠퍼스 입학식은 2월23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거행되었다.

경주캠퍼스는 한의예과 이예준 군이 최우수합격자로 장학금을 받았다.

한태식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동국대 111년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며 "동국대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듯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학법인 이사장 자광 큰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은 동국대학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칙을 배울 것"이라며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 교수님, 학우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4년 후에는 품고 있는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교수 컬럼

신뢰와 존중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김관규
(언론·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교직원, 재학생 그리고 동창회라는 3주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모니를 이루 때 가장 빛난다. 이른바 국내 명문대학은 재학생의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뛰어나며, 동문들의 사회

적 활약이 빛나는 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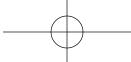
우리 동국대학교의 동문들이 111년의 역사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위상이 이른바 3대 명문사학에 속했던 시기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 국내 주요 대학이 경쟁적으로 외연 확장에 진력하는 시기에 우리 대학은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쳐졌기 때문이다. 대학 운영 주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했고, 동창회는 모교의 끊임없는 혁신을 채근하고 지원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의 위상이 조금씩 하락되어 과거의 명성이 동문 선배들의 전설로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목도하기도 한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과 총동문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 대학의 총장과 총동창회의 관계는 언제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때로는 총장과 총동창회의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기도 하고 갈등적 모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상대방의 입장은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이 수용해 주기를 먼저 바랬다. 또한 개인 간의 호불호 관계가 학교와 총동창회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여 학교와 총동창회가 어느 대학 못

지않은 단단한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 총동창회와 학교 운영진의 목표는 동일하다. 그것은 동국대학교가 국내 명문사학의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제는 전설로 남아 있는 명문 사학이 아니라 교직원, 재학생, 동문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동창회와 학교 운영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동문들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대학구성원은 동문의 조언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로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국대학교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우기 위해 교직원, 재학생, 동문들이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힘을 합쳐 하나가 돼야 한다.



제241호

종합소식

2017년 4월 12일 (수) [7]

고문단 “지속적 동창회 업무방해 불용”

정통성 무시하는 문자메세지 남발 등 분란행위 경고



본회 고문단 간담회가 3월22일 원용선 상임고문을 비롯 김희형 임덕규 심경모 흥파스님 조희영 송석환 고문

이 참석한 가운데 앰배서더 홍보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문들은 일부 인사의 지속적인 동창회 업무 방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부가 대화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한편으로 의연하게 신뢰받는 동창회로 바르게 새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문단은 “동창회의 안정을 해치는 문자 남발로 식상해 있다”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일부 동문의 분란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무처에서는 3월29일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일정과 차기 임원 입후보 등록 현황,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 보류 내용 등을 보고했다.

상벌위원회 우수 단위동창회 3곳 선정

본회 상벌위원회(위원장=정환민 수석부회장)가 3월 23일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4.19혁명동지회(회장 라동영) △부산동창회(회장 박진호) △경제학과동창회(회장 송일호)를 각각 우수 단위동창회로 선정했다. 이

부산지부 | ‘문학기행’ 등 추진



부산지부(회장=박진호, 65/69경영, 동부산대 명예교수) 신년 총회가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6일 연산동 다이아몬드 호텔(사장=이주환 동문)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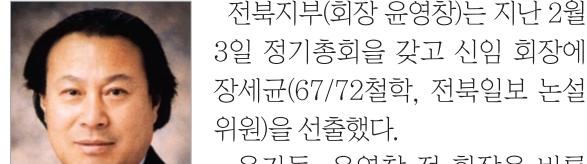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여하는 동창회를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모임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겠다”면서 “동문들과 모교가 연관된 사찰 참배, 문학기행, 운동경기 응원, 연극 · 영화 관람 등의 행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한태식 모교 총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축하했으며,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 전재수 의원 등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인천지부 | 차기집행부 구성 논의

인천지부(회장 이환섭, 71/75경행,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임원회의가 2월27일 원인제역 4거리 우리가본집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들은 차기 집행부 구성 등을 논의한뒤 정답을 나누며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했다.

전북지부 | 회장에 장세균 동문



전북지부(회장 윤영창)는 지난 2월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장세균(67/72철학, 전북일보 논설 위원)을 선출했다.

육기동, 윤영창 전 회장을 비롯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 양정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발굴과 격월 모임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지부 | 4월 월례회 개최

광주전남지부(회장 박태현, 66/70경영, 시온문화사 대표)는 4월10일 금남로 5가 진도회관에서 월례회를 갖고 6월6일 야유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번 우수 단위동창회는 조직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 능별, 지역별, 학과 · 대학원 · 학번별로 구분해 한 곳씩 을 선정했다. 이를 단위동창회는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상금을 시상받는다.

경찰행정학과 | 회장에 박기륜 동문

경찰행정학과동창회(회장=손창완)는 2월2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기륜(75/82, 전 충북경찰청장, 대한민국탐정협회 총재)동문을 선출했다. 또 사무총장에 최응렬(79/83, 동국 대 교수), 감사에 이창한(90/97, 동국대 교수)동문을 뽑았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금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연극영화과 | 회장에 이경규 동문

연극영화학과동창회(회장=최진수)는 2월8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이경규(79/08연영, 개그맨)동문을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은 흥성현(84/92, 전 KBS 성우), 사무국장은 이도재(87/94)동문이 맡기로 했다. 연극영화학과동창회는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사업과 맨토링 프로그램,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업 등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영전문대학원 | 김창걸 회장 연임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가 3월27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김창걸(97/99, 우민통상 대표이사)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뽑았다. 감사에는 정광시(80/82), 김건기(01/03)동문을 선출했다.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총회는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안을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언론정보대학원 | 회장에 윤재민 동문

언론정보대학원동창회 새 집행부가 금명간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8일 총회 겸 송년의 밤에서 수석부회장인 윤재민(1기, 범우출판 대표이사)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同會는 3월초 집행부 회의를 갖고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했으며, 총무는 박병준(05/8광고홍보, EBM 광고)동문을 위촉했다.

뉴욕동문회 | 신년하례

뉴욕동문회(회장 신창균, 74/78무역)가 지난 2월4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2017년 신년하례식을 열고 동문들의 활기찬 새해 활동을 다짐했다.

여자동창회 | 1학기 장학금 지급



여자동동창회(회장 김애주, 76영문, 동국대 교수)는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박연진(약학과 6학년), 윤지원(식품생명공학과 4학년)등 2명에게 각 100만원 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3월22일 모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있은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 안영숙 사무국장(82연영), 김태현 장학위원회(84불교), 사기순 홍보위원회(84국문), 김보원 조직위원회(85전산) 동문과 홍성조 모교 학생처장이 배석했다.

여자동창회는 장학금 수여식(연 2회), 세미나, 송년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회원 참여와 조직확대를 꾀해나가고 있다.

강릉동창회 | 회장에 김동식 동문



강릉지역동문회는 2월8일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을 개정한뒤 회장에 김동식(70/74 체교, 전 정선정보공고 교장, 강릉불교신도연합회장), 총무에 박용하(77/81정외, 전 동국대 팀장)

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박기환(64/68임학, 동해가스충전소 대표) 전임 회장에게는 간단한 선물로 노고를 위로했다.

입학 30주년 Remember 등산대회

제3회 입학30주년 Remember 등산대회가 오는 4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만해광장 및 남산일대에서 펼쳐진다.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동문들의 모임 활성화와 학번간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79학번부터 86학번까지가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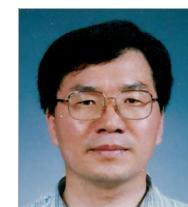
84학번동기회 | ‘제2회 휴먼아카데미’



84학번 동기회(회장 이충주, 체교, 하나제약 이사)의 제2회 휴먼 아카데미가 3월25일 오후 모교 혜화관 고순정세미나실에서 열렸다.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3기 운영위원회 소개, 임시총회, 강연회, 만찬 및 장기자랑 순으로 열렸다.

이날 강연은 이웅희 서울내과외과 대표원장의 ‘Sexuality Map’, 백남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의 ‘암, 알아야 이긴다’를 주제로 열렸다.

본회 사무처에 공기청정기 기증



지형운(77/84식품공학, 영동대 교수) 동문이 3월13일 본회에 공기청정기 1대를 기증했다. 지 동문은 “그동안 공직생활 하느라 모교 발전과 회원간 친목도모에 앞장서는 동창회 활동에 무관심했다”면서 “동국인의 자부심을 심기위해 애쓰는 동창회에 조금이라도 고마운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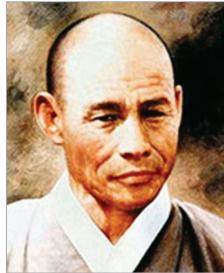
[8] 2017년 4월 12일 (수)

특집

제241호

개교 111주년 기념 - 동국대학교와 3.1 운동

그 고귀한 정신을 민족사학 동국대학교가 이어갑니다



한용운스님



백용성스님



백성욱(전 모교총장)



김법린(전 모교총장)



▲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종로 기독교태화관 자리의 유적지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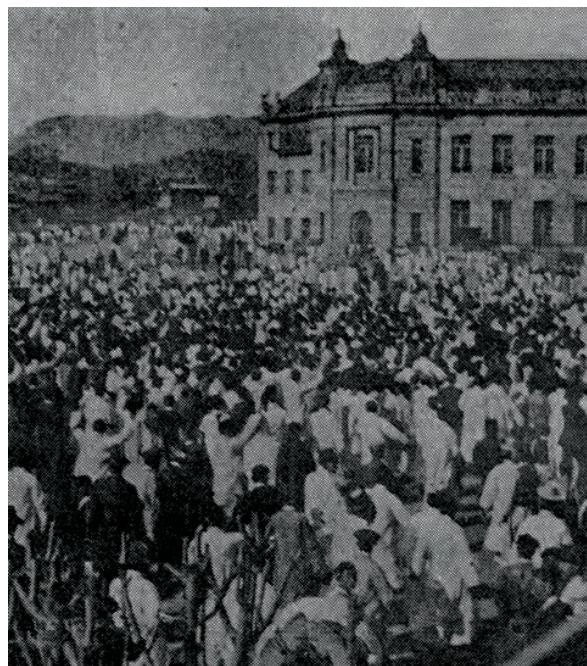
3.1운동 당시 강사들과 재학생들이 전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으며, 특히 1회 졸업생 한용운 선사는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써 불교계를 대표해 이 운동을 주도했다.

중앙학림(동국대학교의 전신, 1915~1922)의 3·1운동 참여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아래 일제는 현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한편,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경제적 수탈과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였다.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점차 식민지정책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일제에 대한 저항감도 점점 고조되어갔다.

종교계, 비폭력 만세운동 조직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지사들은 종교나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국권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1919년 초에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이에 고무된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야욕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파리에 파견할 대표를 선발하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불교·천도교·기독교를 망라한 종교계 인사들은 국제여론을 환기



시키기 위해 대규모 비폭력 만세운동을 조직하였다.

한용운스님 불교계 전면에 서서 운동 주도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당시 불교계의 전면에 서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간 사람은 명진학교 출신이자 중앙학림의 강사였던 한용운이었다. 그는 33인의 민족지도자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하여 백용성(白龍城)과 함께 참가하였다.

1919년 2월 28일 밤 10시, 한용운의 자택에 모인 학생들은 신상완(申尙玩) · 백성욱(白性郁) · 김상현(金祥憲) · 정병현(鄭秉憲) · 김대용(金大鎔) · 오택언(吳澤彦) · 김봉신(金奉信) · 김법린(金法麟) 등이었다.

3·1운동이 계획되자 한용운은 자신이 주재하던 불교잡지 《유심》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종로 계동의 자택으로 중앙학림 학생들을 긴급히 소집하였다. 1919년 2월 28일 밤 10시, 한용운의 자택에 모인 학생들은 신상완(申尙玩) · 백성욱(白性郁) · 김상현(金祥憲) · 정병현(鄭秉憲) · 김대용(金大鎔) · 오택언(吳澤彦) · 김봉신(金奉信) · 김법린(金法麟) 등이었다. 당시 인쇄한 독립선언서 3만 매 중 불교계에 배당된 양은 1만 매였다.

독립선언서 3만매 중 불교계 1만매 배당

중앙학림의 청년 학생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절반은 서울 동북부 일대에, 나머지는 전국의 지방 각 사찰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로 하였다. 서울 시내를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 새벽 3시에 각각 해신하여 서울 시내 포교당과 시외 사찰들을 돌아다니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사찰과 인근 주민들에게 3·1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범어사 · 통도사 · 해인사 등 사찰서 만세시위

한편 각 지방을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에 있은 서울 시내에서의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한 후, 그날 밤 각 지방의 사찰로 향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범어사 · 해인사 · 통도사 · 동화사 등을 중심으로 대

규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화엄사 일대의 사찰과 승려 박영희에 의한 대홍사 승려들의 해남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불교계는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11일 각 지방 대표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였는데, 4월 13일 지방선거회에서 월정사 출신의 송세호(宋世浩)가 강원도 대표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법린 · 백성욱 · 신상완 · 김대용 등 청년 승려들은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요인들과 불교계의 민족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와 독립운동자금의 모금 및 불교 비밀결사조직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대한승려연합회 불교선언사’ 발표

또한 국내에서 한성임시정부가 조직되자 박한영 · 이종욱 등이 불교계를 대표하여 13도 대표로 참여하였다. 또 1919년 9월에 일어난 대동단 사건에도 이종욱 · 송세호 · 정남용(鄭南用) 등의 승려가 연루되었는데, 이때 정남용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9년 11월 15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하러 갔던 범어사의 오성월 · 이법인(李法印) 등 12명의 불교계 지도자들이 항일 독립의지를 다지는 〈대한승려연합회 불교선언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불교계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 아래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의용승군(義勇僧軍)을 조직하는 등 투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에는 신상완을 비롯한 3명의 젊은 승려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계는 3·1운동 이후 직접적인 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불교정책에 대항하여 자주적인 한국 불교의 전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항일운동의 핵심에는 중앙학림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앙학림의 설립에 관여했거나 강사 출신, 혹은 재학 중이던 청년 승려들이었다.

‘동국대학교 백년사’ 중에서



제241호

특집

2017년 4월 12일 (수) [9]

개교 111주년 기념 - 동국대학교와 4.19 혁명

역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의 ‘선봉’



▲ 4.19 당시 대형수도관을 굴리며 경무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東大生들.



▲ 지난해 4월19일 모교 만해동산 동우탑 앞에서 열렸던 추도식 참석자들.

“경무대로 가자” 東大生 최선두에 … 4.19 革命 隊列을 따라서 8시간

1960년 봄 일련의 유혈데모로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4.19혁명!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4월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재정권의 불의에 항거하여 웅기한 최초의 학생민주시민 혁명이었다. 당시 데모 대열의 최선두에 서서 동국대학교의 깃발을 드높이고 폭정에 용맹하게 항거하였던 그 기록들은 역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 동국의 자존심이 되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4.19민주이념 계승이 명문화되고, 수유리의 4.19국립묘지는 성역화되었다. 이에 4.19혁명 57주년을 맞아 그날의 동국대 행적을 당시의 신문보도를 통해 다시 더듬어 본다.(편집자 주)

혁명의 선봉 東大生들 民主政治 요구로 경무대로

4월19일, 어느 누가 잊으랴. 쓰러진 민주주의를 부둥켜안고 통곡하던 그 날을, 부정과 불법 앞에 피를 쏟던 그 날을, 무참히 짓밟힌 기수들의 목숨을!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코 정치가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들이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혁명은 배반당하고 의롭던 그날. 4월은 다시 왔다.

여기 4.19 혁명 첫돌을 맞아 당시 데모대의 최선봉에서 부정과 부패의 아성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본교 데모대의 용감성을 기자가 본대로 소개한다.

1960년 4월19일 오전10시. 데모를 하자던 아무런 약속도 없었건만 학생들은 속속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느 누구의 얼굴에도 ‘주먹구구 정치’ ‘테러정치’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자! 자유당을 타도하자!”

부정과 불법을 밥먹듯하며 부패와 기만만을 일삼는 자유당정권을 그대로 두기에는 우리들의 젊음이, 우리들의 정열이 너무나도 뜨거웠고, 너무나도 벅찼다. 3천 학생은 스크럼을 짜고 뛰어 나갔다. 교문 앞에는 백차 2대와 경찰 50여명이 총검을 들고 길을 막았다. 분개한 3천 학생들이 “악질경찰 물러나라!” 외치며 경찰의 제지망을 돌파하였다. 데모는 노도와 같이 퍼져나갔다.

“정부는 마산사건을 책임지고 물러가라!”

목이 터져라고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 4가에 도달한 것이 10시 20분. 데모대는 연도에 선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으며 시청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어느 상점에서 목마른 학생이 물을 청했을 때 주인은 사이다를 몇병씩이나 따주며 가서 나눠 마시라고 등을 두들겨 주었다. 배인들 오죽 고프겠느냐고 뺨을 내민 아주머니도 있었다. 국민의 이와 같은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데모대는 내무부 앞에 다달았다.

무장경찰 30여명이 길을 막아섰다가 “와!”하는 함성

소리에 그만 줄행랑을 쳤다. 반도호텔 앞을 통과할 때 호텔 4층에서 어느 외국인이 손을 흔들자 창 밖을 내다보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합창하며 국회의사당을 행한 데모대의 손에는 어느덧 태극기가 아름답게 물결쳤다. 11시 정각, 국회의사당 앞에 이르렀을 때 중부소방서에서 무장경찰을 가득 싣고 나오던 소방차가 학생들의 투석을 맞고 뒷걸음질을 쳤다.

“경무대로 가자! 이박사를 만나자!”

본교 데모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정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경무대로 향했다. 그때 본교의 데모대는 선두를 서고 있었다. 중앙청 15미터 전방에 다달았을 때 경찰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붉은 물, 공포 최루탄을 미친 듯 쏘아댔다. 이때가 11시 13분. ‘동국대학교’의 붉은 플래카드 뒤에는 3천 동대생 외에도 1만여명이 훨씬 넘는 데모군중이 뒤따르고 있었다. 최루탄, 연막탄, 붉은 물의 세례를 받으며 11시 20분 해무청 앞에 다다른 데모대는 약간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으나 커다란 태극깃발을 드높이 치켜올리자, 1만여명의 혼성합창대는 애국가를 드높이 불렀다. 그리고 연좌데모를 한 시간쯤. 경찰은 드디어 실탄사격을 시작했다. 학생이 쓰러졌다. 이때가 12시 50분. 다리에, 어깨에, 흉부에, 실탄을 맞고 학생들은 부르짖었다.

“살인경찰 물려가라! 이승만이 나오너라!”

흥분한 데모대는 바리케이드 30미터 전방에서 또다시 연좌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20여 결사대는 통인동을 돌아 국민대 앞에서 경찰을 포위했다.

“와!” “와!” 앞에서도 뒤에서도 성난 데모대가 밀려들자 경찰은 경무대 쪽으로 도망치면서 실탄을 마구 퍼부었다. 데모대는 전차 두 대를 밀어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돌진했다. 통의동 파출소는 화염에 싸였다. 문교부

안에서 서류가 산산이 흩어져 광장을 뒤덮었다. 데모대는 이미 3대의 소방차를 투석으로 빼앗고 경무대 50미터 전방까지 돌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기 민주는 학살당하고 데모대는 흩어지고 끌려가고 중앙청 옆 도로는 피바다가 되었다. 쓰러진 동료를 일으키려다가 경찰에 의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역사의 반역자 살인경찰은 이렇게 하여 우리들의 旗手를 학살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앙청 일대의 보도 위엔 기수들의 피묻은 웃자락이 음산한 바람에 휩쓸리며 나부끼고 있었다. (동대신문 1961. 4. 17)

윤 청 광기자(58영문, 前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4.19혁명 그날의 신문 보도들

學海는 海溢! 怒虎는 암벽에서 포효!

11시30분경 약 2천명의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협잡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을지로를 통과하였다.(중략)

하오 0시5분경 학생데모의 선발대인 동국대학생들이 중앙장 후문인 통의동 파출소 앞에 이르자 대기하였던 경찰대가 일제히 체류탄을 발사했다.(후략)

(조선일보 1960.4.19)

이제야 햇빛을 보게된 그날의 ‘눈’

동국대생을 선두로 한 약 2천명의 데모대는 노도와 같이 중앙청 앞을 지나 해무청 앞 로타리를 끼어 경무대 쪽으로 돌진해 갔다.(중략)

아 때 데모대는 상수도 공사로 길가에 둔 기령 10m 가량되는 상수도용 철관을 굴리며 태극기와 ‘동국대학교’의 프래카드를 선두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질서정연하게 유유히 육박해 갔다(후략)

(동아일보 1960.4.26)

4.19혁명을 증언한다—취재기자가 본 그 밑바닥

19일 의사당 앞을 거쳐간 데모대는 네갈래로 흘렀다. 경무대쪽으로, 대법우너으로, 이기붕씨 집으로, 내무부 앞으로 11시50분 동국대학생 1천여명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동성고교 서울대학 성균관대학생 만여명이 뒤따른 데모대의 주류는 경무대쪽으로 밀려갔다.(중략)

선두를 달린 동국대학생들은 효자동 종점에 펴놓은 제3바리케이드에다 붉은 플래카드를 걸쳐놓고 기세를 올렸다.(후략)

(한국일보 1960.5.5)

[10] 2017년 4월 12일 (수)



월탄스님



암도스님



지하스님(신임)



법타스님(신임)

조계종 원로의원에 동문스님 4명

지하스님(64/70인철)과 법타스님(67/74인철)이 4월6일 제53차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이에 앞서 3월27일 열린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8명의 스님들을 원로의원 후보로 추천했었다.

지하(법용)스님은 추담 스님을 은사로 1960년 수계했다. 군승 5기로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제5~7대, 9~12대 중앙종회의원, 제12대·13대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다.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남원 실상사, 서울 개원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용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법타스님은 추담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동국대 정각원장, 경주 기림사, 동두천시 자재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에따라 동문 원로의원은 월탄스님(64불교, 전 법주사 주지), 암도스님(68불교, 전 교육원장)과 더불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원로의원인 현해스님(64불교, 월정사 회주)은 4월26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은 승급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원로 비구여야 하며,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취임·영전

제23대 제주문화인협회장



김가영(69/73연영, 수필가)= 1월25일 한국문화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992년 '문예사조'로 한국문단에 등단했으며,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제주지회장과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정병국(70/76철학)=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로 지난 2월 취임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위원장, 청파포럼 회장,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박성환(74/78농경)= 3월22일 열린 (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사회에서 제5대 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4월1일부터 3년이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와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거쳤다.

2009년 11월 설립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자동차, 지능형 자동화부품, 의료기기 산업의 IT융합 핵심기술인 비전, 센서, 통신기술을 집약선도해 IT융합 부

품 관련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태영(77/80농경)= 3월23일 제7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운영관리실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R&D실용화센터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CT융합연구단장 등을 거쳤다. 해양과학기술 산업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부사장



김수봉(78/82전산)= 2월6일 알리안츠생명 부사장(감사실장)에 선임됐다.

김 부사장은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인사팀장과 총무국 실장, 생명보험 서비스국장을 거쳐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이어 2013년 11월, 제10대 보험개발원장으로 부임해 통계 서비스 전산화 및 내부 조직 혁신,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에 기여한 바 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정연찬(78/84행정,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3월7일 2급(지방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행정고시 30회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작구 부구청장을 역

임하다 올 1월1일자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으로 옮겼다.

'송도국제화단지개발' 대표



박현수(80/84경영)= 4월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연구·개발(R&D)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국제화복합단지를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990년 언론계에 입문해 경인일보 사회부장, 지역사회부 김포 주재 부국장, 편집국장,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인천시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한울원전본부 대외협력처장



박동복(80/87경제)= 2월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에 취임했다. 지난 198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1993년 한빛원전본부(당시 영광원전본부) 행정실 홍보부 차장을 거쳐 2004년 한수원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노무실 노사업무부장을 역임했다.

서울지방우정청장



박종석(82/86행정)= 2월1일 제5대 서울지방우정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동래우체국장, 전남체신청장,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산하에 서울지역 220개 우체국과 200개 우편취급국을 두고 있으며 종사원은 9천여명이다.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82/86경행)= 지난 2월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 자리로 옮겼다. 1989년 교정간부로 교도관의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을 역임했다.

캠코 충북본부장



김용훈(85/92경영)= 캠코(한국자산 관리공사) 충북지역 본부장으로 2월1일 부임했다.

1992년 한국자산 관리공사 공채로 입사한 후 미래전략개발원 부장, 온비드사업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종합기획부에서 다년간 근무해 캠코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노량진수산 경영본부장



임병득(82/88경영)= 3월16일 수협 노량진수산(주) 경영본부장으로 승진했다. 1988년 노량진수산(주)에 입사, 영업부장과 경영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 단장



장영복(83/87경행)= 2월 6일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 제7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2017년 포항시민과 함께 뛰는 스틸러스, 새롭게 도약하는 스틸러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정보기획실 근무를 거쳐 포스코엠텍 HR지원그룹리더,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다.

농협대전유통 대표이사



이정모(83/87경영)= (주)농협대전유통 신임 대표이사로 1월10일 취임했다. 1989년 농협 중앙회 기획실, 농협 중앙회 태안군지부장,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염규홍(83/87국문)= 3월2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옹호관에 임용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 등을 역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김정욱(85/92행정)=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국방대학교 파견). 창조농식품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바른정당 중앙당 대변인



이기재(86/94토목, 바른정당 양천갑위원장)= 2월13일 바른정당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실 행정관과 산자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한국애브비 상무 승진



정의혁(87/95회계)= 4월초 바이오제약기업 한국애브비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매일 경제신문사를 거쳐 대웅제약과 한국애보트 등을 거쳤다.

제241호

동 문 동 정

2017년 4월 12일 (수) [11]

경찰공제회 13대 이사장 구은수 동문



구은수(78/85 경행, 전 서울경찰청장)= 1월 19일 열린 경찰공제회 대의원회에서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경찰공제회는 1989년 설립된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다.

간부후보 33기로 입직해 종로경찰서장, 중앙경찰학교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경찰청 의사국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 발전 및 치안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은 112,224명이며, 자산규모는 2조3천499억원에 이르고 있다.

‘좀비덤’ 중국 조회수 2억건 이병준 동문



이병준(91/97 연영, 애니작 대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애니작의 ‘좀비덤’이 중국에서 조회수 2억건을 돌파했다. 이 작품은 지난 2014년 SK브로드밴드와 KBS, 서울산업진흥원이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지원사업 ‘애니 버라이어티’에서 당선돼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다. 15부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좀비덤은 중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도 방영됐다. 북·남미 시장 진출도 노력하고 있는 애니작은 현재 좀비덤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장 취임



차창용(90/96산업대학)= 3월초 롯데아울렛 청주점장에 취임했다. 여성 패션 부문 MD(Merchandiser) 전문가로 강남점과 영등포점 여성팀장, 상품본부 여성패션부문 베이직캐주얼 책임바이어를 지냈다.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91/99법학, 법무연수원 31기)=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영장업무를 담당한다. 군산, 의정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제민일보 대표이사



김택남(08/10경영)= 2월28일 제민일보 제27기 주주총회에서 제11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공동대표, 천마그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수상

한국시인협회상



문효지(62/66국문, 시인)= 3월24일 제49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해 6월 출간한 시집 ‘모데미풀’.

1966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11권의



첫 시집 ‘황혼 나그네’ 출간

윤학재(56/62법학, 전 워싱턴DC 한인문인협회장)= 최근 첫 시집 ‘황혼 나그네’를 평냈다. 80평생 중 40년을 이민자로 살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모은 것으로 5부작으로 구성했다. 고국을 떠나기 전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공보실에서 연설문들을 작성

출판·전시

윤학재(56/62법학, 전 워싱턴DC 한인문인협회장)= 최근 첫 시집 ‘황혼 나그네’를 평냈다. 80평생 중 40년을 이민자로 살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모은 것으로 5부작으로 구성했다. 고국을 떠나기 전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공보실에서 연설문들을 작성

했을 때, 현재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13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박진규(필명: 생강, 96/02문예창작)= 신도시 고급사우나를 통해 보는 세상을 그린 소설 ‘살기 좋은 나라?’로 1월31일 세계일보가 제정한 ‘제13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은 1천만원. 2005년 장편소설 ‘수상한 식모들’로 등단한 13년차 작가다.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대상



강동원(04/11영화영상)= 지난해 12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상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룸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애견센터에 개로 위장잡입을 하는 고양이의 이야기를 그린 ‘고양이가 명령’이다.

출판·전시

첫 시집 ‘황혼 나그네’ 출간

윤학재(56/62법학, 전 워싱턴DC 한인문인협회장)= 최근 첫 시집 ‘황혼 나그네’를 평냈다. 80평생 중 40년을 이민자로 살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모은 것으로 5부작으로 구성했다. 고국을 떠나기 전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공보실에서 연설문들을 작성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 오정석 동문



오정석(72/79 농학, 동원주류 판매 대표이사) 동문이 3월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2014년 6대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6대 회장 재임시에는 ‘함께 가자’

(2014년) ‘혁신’(2015년) ‘새로운 도약’(2016년)을 기치로 중앙회의 권익 신장과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왔다.

오동문은 당선인사에서 “주류협회의 통합의 리더가 되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류협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동문은 2월15일 개최된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원법사 장학금’ 수여 해운스님



해운스님(11/15 불교, 포항 원법사 주지, 원법사장학회 회이사장)= 4월2일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주천한 경주캠퍼스 총학 생회장 윤예강군을 비롯 포항시 신풍면의 초중고 및 대학생 46명에게 원법사장학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스님은 2015년 2월 28일 경주캠퍼스에 원법사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장학기금 2억4천만원을 쾌척한 바 있다. 당시 스님은 “재학 중 모교에서 받았던 많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선행·기타

하와이 공립도서관에 100만달러 쾌척

문유진(56영문)=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정착해 살면서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하와이 매컬리 모일릴리 공립도서관이 한국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써달라”며 최근 100만 달러(약 11억 4천690만 원)를 쾌척했다.

기부금은 앞으로 공립도서관이 한국 도서, 잡지, DVD 등을 살 때 전액 지출하게 된다.

머큐어 앰배서더호텔 개관 5주년



우희명(70/74건축,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쓰도베호텔 회장)= 3월22일 호텔 개관 5주년을 맞았다. 2012년 개관한 호텔(288실)은 서울 역삼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해 비즈니스호텔의 성공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자화상 개인전

변웅필(89/96미술, 서양화가)= 4월14일부터 5월10일까지 서울 한남동 갤러리 조은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 연작 24점을 선보이는데 모두 최근작이다. 1996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뮌스터쿤스트 아카데미에서 10년간 공부했다.

장애 딛고 의료 및 일반 봉사활동

이승현(89/94한의, 울산 남구 한의원장)= 장애와 편견을 딛고 한의사의 꿈을 이룬후 약손봉사회를 만들어 매월 중증장애인시설 등을 찾아 장애 아동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2] 2017년 4월 12일 (수)

전 면 광 고

제241호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회장 백 우 현

**열정과 꿈을 갖고
글로벌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봅시다.**



사단법인 한국황토 원적외선협회
KOREA LOESS FARINFRARED ASSOCIATION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1, 2층 (사직동, 궁전스카이빌딩)

< 학력 >

1970. 2.
1973. 2.
1988. 2.
1997. 11.
- 동국 대학교 화학과 졸업
동국 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학석사)
동국 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러시아 과학원 명예 이학박사 학위취득

< 경력 >

2006. 3. ~ 2017. 현재.
1979. 5. ~ 2006. 2.
1982. 3. ~ 1984. 2.
1982. 12. ~ 1983. 2.
1988. 3. ~ 1989. 2.
1991. 3. ~ 2001. 4.
1991. 3. ~ 1993. 4.
2002. 3. ~ 2003. 2.
- 경상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명예교수
경상대학교 전임강사-교수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과장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방문교수
한국 과학기술원 교환교수
러시아 과학원 무기화학 연구소 연구교수
경상 대학교 부속 전자계산소장
인제대학교 교환교수

< 주요 활동 >

2000. 5. ~ 2017. 현재.
1982. 3. ~ 1984. 2.
1998. 1. ~ 2008. 7.
1998. 4. ~ 2000. 4.
1989. 3. ~ 1990. 4.
2001. 3. ~ 2007. 11.
2004. 9. ~ 2005. 4.
2004. 11. ~ 2010. 3.
2010. 9. ~ 2011. 12.
2014. 10. ~ 2015. 3.
2014. 9. ~ 2016. 12.
2014. 11. ~ 2016. 현재.
2015. 2. ~ 2016. 12.
2015. 4. ~ 2015. 12.
- 사단법인 한국 환경 과학회 고문
사단법인 대한 화학회 서부경남 지부장 역임
한국 노벨 과학상 수상지원본부 정회원
사단법인 한국 환경 과학회 회장 역임
EurAsia chemical Conference 재정분과 위원장 역임
전국 과학기술인 협회 원적외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삼한 시원 기술 고문직
사단법인 과학문화 연구원 연구위원
주식회사 삼한 시원 기술 고문직
국가미래 창조경제기획단 수석전문위원
주식회사 운암인터내셔널 기술연구소 기술고문
하동군 동황토 자원화 TF 팀 자문교수
주식회사 하이홈코리아 기술자문교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명예 흥보대사

< 포상 >

1984. 12. 5.
1986. 4. 26.
1996. 12.
2006. 2. 28.
2004. 3.
2006. 10.
2009. 12. 22.
2010. 2.
2010. 6. 18.
2011. 9. 1.
2013. 5.
2013. 8.
2014. 1.
- 문교부장관 표창
대한 화학회 진보상 수상
한국방송공사 (KBS) 지역대상 수상 (환경분야)
대통령 포장
스포츠서울 P.T.S top brand 대상
헤럴드 경제 대한국민 신뢰 경영우수기업 대상
대구지방 교정청장 표창
뉴스메이커 선정 2010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대상
서울신문 Vision 2010 경영혁신 대상
국가브랜드 위원회 “우리몸을 살리는 생명의 흙 황토 백 우현” 등재
뉴스메이커 선정 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대상 백우현 경상대 화학과 이코노미타임21지 선정 2013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14년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중구청과 함께 '캠퍼스타운' 조성

청년창의공간·한류문화거리 등으로 특화

모교가 서울 중구와 함께 캠퍼스 인근 서애로, 필동로, 동국대 후문길, 퇴계로 36길 일대 51만3천2백m²에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

한태식 총장은 지난 1월31일 “남산부터 종무로로 이어지는 이 지역을 청년창업 거점으로 삼아 지역 관광문화를 끌어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창업육성·문화특성화·지역협력 등 3개 분야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국대 종무로 영상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애니메이션센터·서울영상미디어센터·대한극장 등과 연계해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퇴계로 지하보도에는 청년창업자 거점 공간인 ‘청년 창의 공간’이 들어선다. 소셜 벤처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스타트업 창업 전략, 비즈니스모델 평가, 사업계획서 피드백 등을 통해 창업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남산골 선비들이 문예를 즐긴 서애길 일대는 한류문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에 문화인문학계 학생들이 참여해 힘을 보탠다. 또한 인근 상권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먹거리공간을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빈집이나 헐로 사는 가구를 학생과 이어주는 세어하우스 시스템도 도입된다.

법인 임원, 학교발전기금 앞장

자광 이사장 2천만원·정념 이사 5천만원·돈관 이사 5천만원



이사장 자광스님



이사 정념스님



이사 돈관스님

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동국대 발전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법인 이사 돈관스님(영천 은해사 주지)도 2월8일 조계종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동국대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5천만원을 회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잊달아 소중한 정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다른 이사님들의 기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업지원단 지난해 63억원 매출

모교 창업지원단(단장 이광근 교수)은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67팀의 창업 및 사업회를 지원해 총 63억6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기업인 (주)센스톤(대표 유창훈)과 (주)언리얼파크(대표 이상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K-Global 300」에 포함됐고, 연매출 38억여 원을 달성한 (주)포워드퓨처(대표 여원동)는 창업진흥원이 선정한 「우수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외 창업경진대회에서는 49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동국창업리그 대상 수상자인 (주)오비츠코리아(대표 김종윤)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 2016」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초소형 시력검사기를 선보여 최종 3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를 차지했다.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우수창업기관 표장을 받은 모교는 스타기업 육성과 잠재력 높은 기업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Global Challenge Asia 2016 Startup Competition」에서 ‘위플레이’(대상)를 포함하여 4팀이 수상했으며, 대만 및 방콕 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출전자 전원 수상을 기록하며 창업에 강한 대학임을 증명했다.

2016년 실제 창업한 동아리는 29개 팀이며, 한 해동안 이 동아리들이 기록한 매출은 9억여원이 넘는다.

한편 모교는 박영석 프로젝트, Death-Valley 프로젝트, DU-Dream 프로젝트를 통해 ▲ 청년창업 활성화 ▲ 사업화 성장지원 ▲ 지역사회 연계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111명 합격

모교는 지난 1월 말 발표된 2017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모두 11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111명은 올해 맞이하는 모교 개교 111주년과 같은 숫자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과목별 합격자수는 △국어 16 △수학

8 △영어 4 △일반사회 3 △역사 13 △체육 27 △생활 2 △지리 1 △도덕윤리 2 △음악 1 △미술 4 △한문 3 △가정 19 △상업정보 3 △정보컴퓨터 3 △보건 2 명 등이다.

세무사 시험에 20명 합격

모교는 지난해 11월2일 발표된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시험에서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국합격자는 634명이다. 모교는 지난 2015년에도 20명이 합격한 바 있다.

합격자 명단=△오형석(무역90) 동문을 비롯해 △주승용(전자공91) △신형일(회계96) △김원태(회계99) △김민영(경회계11)

영00) △백진호(경제03) △장종호(국제통상04) △최웅석(회계06) △신백용(회계06) △윤영민(회계06) △유수현(법학07) △이지수(회계07) △이형은(회계07) △조진채(경영07) △김수연(회계09) △김은지(회계09) △박문성(회계10) △박수인(회계10) △엄용식(경영11) △김영석(회계11)

모교 전임 교원 4명 정년 퇴직



양영진 교수



이형우 교수



이동웅 교수



홍성원 교수

지난 2월28일자로 모교 전임 교원 4명이 정년퇴임했다.

이번에 퇴임한 서울캠퍼스 교원은 △사회학전공 양영진(1986.9.1부임, 교무부총장 역임) △행정학전공 이형우(1994.9.1부임, 전략기획본부장 역임) 등

2명이다.

경주캠퍼스는 △생명공학전공 이동웅(1988.3.1 부임, 기획처장 역임) △의과대학 홍성원(1996.9.1 부임, 의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역임) 교수가 퇴임했다.

'QS STARS' 6개분야 5Stars 획득

모교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QS Stars 인증에서 6개 분야 5Stars를 획득했다.

QS Stars는 △교육(Teaching) △취업역량(Employability) △연구(Research)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시설

(Facilities) △ 혁신(Innovation) △ 포용성 (Inclusiveness) 등 부분별로 5Stars(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우리대학은 201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전년도 537위에서 93계단 상승한 444위로 뛰어오르며 세계대학순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경주캠퍼스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된 데에 이어, 지난해 인증 평가에서도 올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인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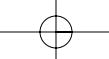
경주캠퍼스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우수자비 장학생 지원사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기관 선정, 2015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2016 법무부의 유학생 조기적응 지원센터 등에 선정된 바 있다.

동국대일산병원(원장 채석래)은 3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

난 2015년 한 해 동안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위절제술)을 시행한 221개 의료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환자 관련 진료기록을 평가했다.

2년 연속 위암 적정성 ‘1등급’ 획득



[14] 2017년 4월 12일 (수)

회비납부

제241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금액 · 가나다 순

〈 2017년 1월 11일 ~ 4월 10일 접수분 〉

회비 납부

2017년 4월 12일 (수) [15]

문대성(56정치)	박지환(60경영)	손창학(81건축)	여인근(58임학)	이경자(94불원)	이영주(94경원)	이학성(07미술)	정용근(80행정)	정운수님(93불원)	한운섭(68경영)
문동호(64화학)	박진숙(72기교)	손학목(79회계)	여환준(67법학)	이경호(71무역)	이영규(57법학)	이해규(57법학)	정용운(99경제)	최경수(92회계)	한을희(70경영)
문봉구(57경제)	박진혁(07사대원)	송광호(73경제)	연회사	이계중(70임학)	이영환(88경원)	이환근(82수교)	정용일(70법학)	최근수(93산원)	한인만(64국문)
문상호(59불교)	박태영(10경영)	송기백(80경영)	염동훈(58법학)	이관숙(08행원)	이영희(01불원)	인형식(61영문)	정유식(86법학)	최낙복(78수교)	한진석(72전자) 6
문승국(81회계)	박태원(65국문)	송기훈(65경제)	오건석(64경영)	이광열(89행원)	이우동(82영문)	임미영(03경영)	정윤식(69법학)	최낙석(59경제)	한종희(92컴공)
민병진(57정치)	박충원(83건축)	송무훈(55법학)	오명석(88경원)	이규식(71법학)	이용기(71영학)	임운기(60영학)	정이조(79경원)	최동우(76회계)	함상섭(57정치)
민병천(82공경)	박희익(63상학)	송성환(66경제)	오무웅(92불원)	이규식(84회계)	이용국(74경영)	임인규(78승가)	정일준(71경제)	최동지(75토목)	허남결(84국민윤리)
민수영(59정치)	배상덕(94북한)	송수옹(94행원)	오상진(81법학)	이균현(59정치)	이용복(01경영)	임재천(74영문)	정창숙(94교원)	최민석(03전자)	허수청(08불원)
민웅식(57경제)	배승환(76물리)	송운하(07행원)	오세첨(60상학)	이근수(98북한)	이용석(73정외)	임종출(81화공)	정창민(83행원)	최병만(83행정)	현웅기(81행정)
민현호(82영문)	배용성(64경제)	송인재(88시사회)	오준철(79행정)	이기학(82경영)	이운길(76경행)	임종홍(86경원)	정창현(66경영)	최병주(61불교)	현정스님(97불원)
민홍기(74경영)	백기원(64정외)	송재관(64행정)	오혜성(96문원)	이나호(92행원)	이원생(61법학)	임준형(87사회)	정춘덕(59법학)	최본식(59상학)	현진스님(83선학)
박노훈(72사교)	백길웅(85인철)	송재신(58법학)	오히영(75경외)	이남영(94행원)	이은설(58경제)	자비사	정태수(72행원)	최봉석(92정외)	형성호(04행원)
박덕성(66식공)	백승만(63국문)	송준호(79농학)	왕산사	이대수(92행원)	이은집(79교원)	장경웅(61상학)	정택열(83화공)	최상기(74전산)	헤안스님(96선학)
박덕언(88경영)	백승운(87경영)	송진호(81경영)	용문사	이동식(83무역)	이인용(88무역)	장광수(80경영)	정판설(68경제)	최상욱(81환경조경)	호암스님(07한국음악)
박동해(58법학)	백주홍(59법학)	송호택(82경영)	우현의(10불원)	이득순(05경영)	이인화(02국교)	장근석(82법학)	정학주(64법학)	최수영(73행원)	총기표(58정치)
박동현(84회계)	범어사	송종증(66행정)	운문사	이득현(72국교)	이밀환(87행원)	장명근(58법학)	정현(91화학)	최수용(85전산)	홍면유(68자동제어)
박동훈(03경원)	법농스님(91불원) 5	수경스님(78불교)	원각사	이맹우(91불원)	이장걸(56사학)	장병수(10대학원)	정홍진(95불원)	최영란(86지교)	홍법사
박두호(63경행)	법장사	신경애(81영문)	원경스님(95불원)	이범주(78식공)	이장희(61농학)	장보선(87교원)	조민수(70경영)	최영안(63국문)	홍성호(80무역)
박래학(61경제)	법주사	신남수(87경원)	원명상(62경제)	이범주(96기계)	이재동(97률원)	장봉기(87교원)	조병구(67식공)	최일상(66경제)	홍영자(64국문)
박병현(82물리)	변승현(00경원)	신동기(03행원)	원종길(61농학)	이범천(82행원)	이재봉(65물리)	장석기(58정치)	조병권(85경원)	최재오(57법학)	홍우성(88건축)
박부남(98불원)	변우근(67법학)	신법월(55물리)	원치선(95경영)	이병길(67화학)	이재원(58법학)	장석율(70식공)	조석래(75전자)	최종하(68경영)	홍중관(68경영)
박상건(85전자)	변윤섭(65정외)	신상근(01경영)	위경용(68식공)	이병주(78행정)	이재진(69경제)	장세인(69정외)	조선주(81행원)	최주열(64상학)	홍중현(82연영)
박상기(84무역)	변중근(60법학)	신상조(76화학)	유광희(64생)	이병직(71통계)	이재향(64경제)	장승수(88언월)	조성제(95대학원)	최종열(56정치)	화언사
박상평(80화공)	변준연(86토목)	신석현(60사학)	유덕훈(03환경)	이상삼(80건축)	이정기(86행원)	장영희(47경제)	조숙영(85국사교육)	최진기(72국교)	황규원(85정보관리)
박상현(64대학원)	보경스님(10선학)	신영철(57국문)	유두상(70경제)	이상상(75건축)	이정분(03불월)	장의선(87체육)	조신규(00행원)	최진규(00행원)	황규철(80회계)
박상현(91전기)	보광사	신용인(84행원)	유상갑(64법학)	이상진(96경영)	이정원(98법학)	장해수(76경영)	조영래(89일문)	최창동(84대학원)	황규원(65공관)
박선규(60정치)	보륜사	신용현(80한의)	유상번(70행정)	이상훈(77화공)	이정호(74경행)	장희범(75식공)	조정현(01교원)	최철영(64행정)	황병행(03불문원)
박성우(65정외)	보림사	신우월(96무역)	유영식(55법학)	이석구(86경제)	이제일(83경영)	전문화(81전자)	조준수(87경원)	최태영(93행원)	황봉연(82토목)
박성진(60정치)	보문사	신재근(81경영)	유재순(77도목)	이석봉(86행원)	이중근(95경제)	전병옥(04법학)	조중근(61상학)	최효식(64시학)	황수경(00대학원)
박영기(98불원)	보문선원	신진우(83경계)	유지님(70농학)	이석원(76전기)	이중만(05국제통상)	전상윤(89회계)	조종달(94문원)	최홍길(58경제)	황용인(85교육)
박영길(62화학)	복구암	신태환(63법학)	유해덕(55수학)	이석준(55정치)	이종서(71법학)	전선우(84경제)	조한석(06경영)	최희주(04국제통상)	황용인(60임학)
박영기(88국교)	삼성암	신호중(76통계)	유호열(53농학)	이석준(01경제)	이종천(56국문)	전수식(62법학)	조한원(61상학)	칠불사	황운철(95정보산업)
박영화(80승가)	서거원(60경계)	심광보(58물리)	유황천(74정외)	이석호(77행정)	이충한(70경영)	전수오(02경영)	조현월(77화공)	칠장사	황중환(96행정)
박옥생(01대학원)	서광익(85전기)	심규선(61물리)	윤석재(70경영)	이선주(90의학)	이중호(54법학)	전은영(70학회)	조현규(65임학)	하영태(55법학)	황태영(83행원)
박용수(93행원)	서동일(84경행)	심기열(81회계)	윤석재(59법학)	이성구(89행원)	이주영(80경원)	전의홍(85법학)	조희제(00국원)	하경호(86경원)	황용인(85교육)
박윤규(84경원)	서분도(82국민윤리)	심명호(67생)	윤영길(61상학)	이성민(92전자)	이주환(55정치)	전재원(04기계)	조희제(88선학)	하림스님(88선학)	황운걸(60임학)
박윤식(79사회)	서석일(00사대원)	심제호(83법학)	윤원수(88불교)	이성온(86연영)	이준(56생물)	전천승(84경영)	주노식(76국사교육)	하희순(92불원)	황운철(95정보산업)
박윤태(64상학)	서승오(57법학)	안군수(85회계)	윤일현(84경영)	이성철(94경영)	이준호(74화공)	전철수(74연영)	주의영(01행원)	하문수(55경제)	황중태(83인학)
박장서(57사학)	서정록(68수학)	안병조(63경제)	윤장근(65법학)	이승박(79한의)	이중량(55정치)	정각사	주정호(92회계)	하영태(55법학)	김종필(82행정) 월3만원
박재신(77공경)	서창식(60상학)	안재권(78토목)	윤중숙(81행원)	이승후(88경원)	이창근(72체교)	정경환(86무역)	주태우(01대학원)	하종태(83인학)	원 = 누계 48만원
박재원(86대학원)	설안스님(00대학원)	안한상(66국문)	윤지연(94컴공)	이시우(61정치)	이창진(02불교)	정구인(62국문)	지산스님(88교원)	하혜순(92불원)	동명사 월2만원
박점식(67정외)	성기호(61상학)	안홍수(70공경)	윤찬희(78화공)	이신철(56법학)	이철웅(81한의)	정금연(72행원)	진성기(99행원)	학명스님(04불원)	= 누계 74만원
박정인(69경제)	성불사	양승렬(60연극)	윤창수(76경행)	이양길(64인철)	이철희(79전기)	정대연(64연영)	진성스님(76승가)	한경구(61임학)	
박종철(81행정)	성심사	양용자(03불원)	은세곤(57사학)	이양우(63상학)	이종량(55정치)	정동민(67경영)	차준환(70전자)	한권구(82기축)	
박종철(98문원)	소봉순(00경영)	양원모(05사대원)	은해사	이연석(66경행)	이칠규(85무역)	정상용(69정외)	채무홍(58농학)	한기동(79행원)	
박준근(08행원)	소재사	양정기(65통계)	이건선(65임학)	이영규(73수학)	이태재(79경영)	정석승(59상학)	채택수(64대학원)	한기장(97경영)	
박준엽(89화공)	손락상(84행정)	여관무(69경계)	이경수(88도목)	이영길(99행원)	이태한(66경영)	정선호(06경원)	채희석(90법학)	한도수(58경제)	
박준일(95회계)	손준기(80화학)	연기화(89일문)	이경우(48국문)	이영범(82농학)	이택수(66경제)	정승석(75인철)	정계사	한성권(80경영)	
박지원(56경제)	손창우(86전산)	여운규(55영문)	이경우(58경계)	이영숙(69사교)	이학설(56법학)	정심사	정곡사	한영수(76수학)	

이사회 · 총회 협찬금

경제학과동창회(회장 송호일)
100만원

대표이사 김진길 (행정 78卒)

-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 ▲ 동국대학교 총장 한보광
- ▲ 동국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장 김병대
-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동창회 회장 김종찬
-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김석만
-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 ▲ 동국대라이온스클럽 회장 홍종표
- ▲ 행정대학원동창회 회장 서영수
- ▲ 행정대학원총동문회 회장 최광일
- ▲ 동행산악회 회장 홍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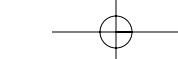
회비 납부는 동국사랑의 출발입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 회계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 고문	1백만원이상	• 부회장	1백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납부방법 (예금주:동국대학교총동창회)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6] 2017년 4월 12일 (수)

전 면 광 고

제241호



NIKOM
한약진흥재단

원장 / 한의학박사
신 흥 목

38540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Tel. 053) 810-0202
Fax. 053) 801-9897
Mobile. 010-8571-7520
E-mail. heungmuk@nikom.or.kr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한의약산업
진흥 선도기관,’

www.nikom.or.kr



辯護士 / 辦理士
吳 淑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五沅物產株式會社

會長 許秀昌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 08期)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 501호 (관훈동, 오원빌딩)

Tel. 02) 739-5534 (直), Fax. 02) 739-5537
Mobile. 010-5261-7396
E-mail. o-won@o-won.co.kr



EASTAR JET 10th
이스타항공

김포-제주, 김포-부산,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인천-나리타(도쿄), 간사이(오사카), 오기나와, 후쿠오카, 치토세 / 부산-간사이(오사카)
인천-홍콩 / 청주-선양, 엔지, 닝보, 상하이(푸동), 다롄, 하얼빈 / 제주-취엔저우
인천-타오위안, 김포-송산 / 인천-코타키나발루, 부산-코타키나발루 / 인천-방콕, 부산-방콕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인천-다낭 / 인천-씨엠립 / 인천-시아판 / 인천-비엔티안